



영화를 만나다! “돌아온 탕자”



“돌아온 탕자”(렘브란트 반 레인, 캔버스에 유채, 1669년, 러시아 에르미타주 미술관 소장)



“돌아온 탕자”(바르톨로메 무리요, 캔버스에 유채, 1667-1670년, 미국 워싱턴 국립 미술관 소장)

화가 렘브란트와 무리요는 비슷한 시기에 돌아온 탕자에 대한 그림을 그렸어요. 그런데 그림에 등장한 사람들의 표정이나 자세가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. 두 그림의 차이점과 공통점을 알아보고, 나만의 감상 포인트도 찾아보세요.

〈차이점〉

렘브란트의 그림에서 둘째 아들의 얼굴 표정은 보이지 않지만, 무리요의 그림에서는 둘째 아들의 표정을 볼 수 있어요. 렘브란트는 용서하는 장면을 아버지만 볼 수 있도록 그림을 그린 거지요.

〈공통점〉

그림 속 아버지는 모두 두 팔을 벌려 둘째 아들을 안아 주고 있어요.

〈나만의 감상 포인트〉

또 다른 모습을 찾아보세요.



나만의 기도문 만들기

아래에 있는 <참고 단어>를 사용해서 빈칸을 채우고, ‘나만의 기도문’을 완성해 보세요.



〈나만의 기도문〉

하나님, 예배의 자리로 우리를 부르시고 말씀을 듣게 해 주셔서 감사해요.

때로는 우리에게도 예수님이 들려주신 _____ 속 _____ 과 비슷한 모습이 있어요.

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지만 _____ 과 멀어지는 _____ 를 짓는 행동들 말이에요.

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떠나서 죄를 짓더라도

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_____ 해 주신다는 것을 믿어요.

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셔서 감사해요.

하나님의 놀라운 _____ 을(를) _____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. 아멘.

〈참고 단어〉

비유, 이야기, 둘째 아들, 죄, 잘못, 회개, 용서, 구원, 사랑, 은혜, 예수 그리스도, 하나님, 예수님, 말씀, 전파, 전달